

전기 캘린더

'91. 3月

〈홍콩〉

홍콩은 변압기 및 축전기에 사용되고 있는 PCB의 사용을 금지키로 하고 일단계 조치로 금년 하반기부터 PCB의 수입을 금지키로 하는 등 관련 법규의立法化 작업에 착수. 따라서, 우리나라의 습식 변압기 및 축전기 제조업체의 PCBS 사용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 수립이要望됨.

〈브라질〉

브라질 정부는 '91년도 전기통신 현대화사업에 35억 \$를 투자하기로 최종 확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91년도 중 총59만1천개의 통신터미널을 신설할 예정. 우리 관련업체에서는 케이블, 트랜스포머 등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국제입찰 참여 또는 현지투자 진출 모색의 필요성이 요구됨.

〈國內〉

한국은행은 그동안 투기억제 대책에 따라 금지했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담보취득을 기업주 또는 배우자 주거 주택 등에 한해 허용할 계획. 이같은 조치는 3자담보 취득금지 조치 이후 중소기업의 담보여력이 크게 위축됐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아 업계 자금난 및 금융비 가중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무역산업장관은 관세와 관련 지난 1986년 우루과이 푸타 델에스테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 협상의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현재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해 UR가 가능한 한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

〈美國〉

美관민합동의 반도체회사인 세마테크는 IBM, 듀퐁 등의 美공동 기업체 이테크(Itec)와 '차차세대 반도체 제조장치'로서 256MD램용 노광장치의 공동개발에 착수.

〈印度〉

인도는 외환보유고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을 급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인도중앙은행이 각 상업은행에 발송한 공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민간수입업체들에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업체에 대한 외환지급 조건도 매우 엄격히 하기로 함.

〈世界〉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전기엔지니어링업체 ABB社가 구동독지역내의 발전설비업체인 베르크만 보르시히社를 매입했다고 발표.

ABB社는 향후 3년간에 걸쳐 3천만\$를 투입, 생산설비를 현대화시켜 연간매출액을 최소한 1억 8천만\$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

〈체코〉

체코는 늦어도 2천년까지 EC의 정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바츨라프 하벨대통령이 밝혔다. 그는 현상태로서 EC가입문제는 시기상조의 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서유럽국가들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켜나가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國內〉

재무부는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키 위해 첨단산업관련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대폭 확대, 정밀전자산업 등 7개분야의 147개업종과 방위산업 관련업종에 대해 관련시설재 수입시 '91년에는 60%, '92년에는 50%, '93년에는 40%를 각각 감면해 줄 방침.

〈日本〉

일본의 미쓰비시 전선공업은 인도네시아에 자동차용 전선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현지의 중견전선 메이커와 합작으로 설립키로 했다. 미쓰비시 전선이 85%, 현지메이커가 15%를 출자하여 와이어하니스와 전자기기용 케이블을 제조할 계획으로 올해 5억円, 5년후 20억円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日本〉

일본전선공업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광파이버 생산이 급격히 증가, '90년의 출하량이 1백52만 5천4백34km코어로 전년대비 8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가정 및 기업에까지 광케이블을 부설하려는 일대 프로젝트에 힘입은 바 큰데, 광 LAN(구내정보통신망)의 보급을 포함, 앞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 확실시 돼 광파이버 메이커의 설비증강 계획 또한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 텔리포니카사는 멕시코, 미국, 이탈리아의 3개 전기통신회사와 이를 각국을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 설치를 위한 협정에 서명, 앞으로 남미, 미국 중남부, 유럽간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고 발표.

〈페루〉

페루정부는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 수입관세율 인하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입관세율은 15~25%로 하향조정되며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고관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출 예정이고 외환거래 및 은행계정 보유에 대한 각종 규제 조항들도 철폐키로 결정.

〈국내〉

특허청은 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 기술사업화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작품 제작비 지원대상을 늘리고 해외 출원비용의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해 해외에서의 권리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

〈世界〉

스웨덴의 ABB社가 구동독지역 코트브스市에 있는 유력 중전기메이커 AAC社를 매수. 유럽의 유력 전기업체인 ABB는 이로써 최근 3개월동안 구동독에서 두번째 기업을 매수하였다.

〈프랑스〉

프랑스의 전자업체인 메를린 게린사가 형가리 국영전자장비업체인 베르테즈사 전체주식중 51%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 同社는 배선시스템, 안전시스템 및 변압기 등 기초전기전자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번 주식인수를 계기로 1억5천만 프랑스프랑 정도의 매출신장을 기대.

〈日本〉

일본의 수미토모 전기공업은 세라믹계 초전도 재료를 사용한 코일에서 1테스라라는 세계최고 자장을 발생시키는데 성공. 同社는 대형화, 장착화를 검토한 뒤 1~2년 내에 제품화를 시도할 예정.

‘91. 4月

〈日本〉

일본의 住友상사는 東芝, 日立製作所 등 3개사 연합으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아부다비로부터 40만V급 變電所 3개소(220억円)를 수주.

〈日本〉

일본의 제어기기 제작업체인 오므론이 자사 제품을 중국에 판매

키 위해 베이징에 100% 출자 자회사를 설립. 신설 자회사는 30만 \$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오는 7월중 가동에 들어가 '95회계연도 까지 연간 200억円의 매출을 목표.

〈國內〉

產業設備 수출이 中小型 제조설비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올 수출규모가 1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상공부에 따르면 산업설비 수출은 올 1/4분기중 2억2백40만\$로 전년동기대비 72.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간의 수출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美國〉

美백안관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소재, 제조, 컴퓨터, 생명공학, 우주항공, 에너지 등 22개 核心技術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분야의 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의 계획도 제시키로 했다고 보도.

〈日本〉

일본의 三井조선과 伊藤忠상사는 태국 석유화학공업으로부터 5만4천KW규모의 발전소 건설계약을 수주. 이 發電所는 저급의 석탄을 사용하여 무공해발전을 하게 되는데 중유연소 보일러와 두개의 증기터빈, 그리고 두개의 발전기가 가동될 예정.

〈中國〉

<p>중국정부는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테크개발구로 전국 26개소를 지정. 대상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항공우주산업, 일렉트로닉스,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10개 분야의 첨단산업과 전통 산업을 살린 새 기술.</p>	<p>등의 기술개발에 성공, 현재 건설 중인 것을 포함, 8차5개년 계획기간 중 2만km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美國〉</p>	<p>미국정부는 무역발전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증기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인터컨티넨탈 파워 코퍼레이션(IPC)사에 보조금 50만 \$을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 IPC는 12억 \$ 규모의 증기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비만타라시트라 그룹과 경쟁하고 있는데 양사는 프로젝트의 소요비용의 수행계획 및 원자재 확보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p>	
<p>〈日本〉</p> <p>일본의 東芝社가 가정용 전기제품의 크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고압인버터회로를 개발. 신개발된 인버터회로는 기존 인버터회로가 200V미만의 전압을 처리할 수 있는데 반해 500V까지 전압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짐.</p>	<p>〈國內〉</p> <p>政府는 소련을 비롯한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對북방지역 투자 규모 한도를 지금까지의 1백만달러 이상에서 2백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는 투자의향서 체결이후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경유없이 바로 주무부처의 사업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日本〉</p> <p>일본 경제신문사가 4월초 분석한 '91년도 1/4분기(4~6월)중 '주요 30업종산업 日氣圖'에 따르면, 중전기기 산업은 폐청업종으로 주력인 전력용은 일본국내 전력회사들이 설비투자분을 앞당겨 발주하는 등 설비투자의욕이 높기 때문에 계속 호조를 보이며 엘리베이터등 승강기는 건설회사의 많은 수주량 보유로 고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中國〉</p> <p>중국이 통신망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8차 5개년계획('91~'95년) 기간중 전장2만km의 光파이버 케이블 부설을 계획. 또한 일부 光일렉트로닉스 부품, 단파, 장파의 레이저器, 제4차群 일관설비</p>	<p>〈國內〉</p> <p>韓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8.9%에 이르고 수출 7백15억달러, 수입 7백70억달러에 경상수지 적자는 2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p>	<p>〈世界〉</p> <p>EC는 4月15日 외무부장관회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에 대응, 지난 '86년부터 부과해 온 수입규제 조치중 현재 남아 있는 조항을 전면 철폐키로 결정되어 南阿共產 철강과 소전(金)의 수입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UN이 부과하고 있는 무기판매, 원유수출,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핵개발협력 등에 관한 금지조치들은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p>
		<p>〈日本〉</p> <p>일본 경제신문사가 4월초 분석한 '91년도 1/4분기(4~6월)중 '주요 30업종산업 日氣圖'에 따르면, 중전기기 산업은 폐청업종으로 주력인 전력용은 일본국내 전력회사들이 설비투자분을 앞당겨 발주하는 등 설비투자의욕이 높기 때문에 계속 호조를 보이며 엘리베이터등 승강기는 건설회사의 많은 수주량 보유로 고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世界〉</p> <p>일본의 미쓰비시(三菱)전기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레트릭이 전기발전장비의 개발에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합의하면서, 양사는 전기발전장비에 관한 기술을 교환하고, 신기술개발에 협력하며 소재 및 부품을 서로 나눠쓰기로 했다.</p> <p>〈國內〉</p> <p>공업진흥청은 4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품질관리진단에 나서는데, 대상업체는 상공부추천 유망 중소기업,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높은 업체, 자동차 및 전기전자분야의 소재 및 부품생산 협력업체 등 446개 업체를 선정하고, 26개 모기업 심사기관과 11개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등급사정 상품의 경우 품질일반관리를 하는 것을 비롯 표준관리, 공정관리, 설비관리를 해 품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영 및 품질관리실태 분석을 하게됐다.</p>

<p>〈國內〉</p> <p>상공부는 공통취약기술인 용접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오는 '95년까지 984억 원을 투입 110개 첨단용접기술 과제를 개발키로 함.</p>	<p>〈이집트〉</p> <p>이집트에서는 전압편차가 심하고 자주 정전되는 경향이 있어 電壓安定 및 순간 정전시 전기제품을 보호하는 장비로 UPS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시장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는데 연간 수요는 3K-VA까지가 약 5천대, 3KVA부터 10KVA까지가 약 1천대, 그리고 10KVA이상 대용량이 약 1천대 정도임.</p>	<p>전혀없는 품목이 輸入된 뒤 국내 생산품으로 표기돼 市販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輸入品은 原產地가 표기돼 있기는 하나 경미한 加工, 단순조립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 소비자들을 유혹시키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오는 7월1일부터 輸入物品에 대한 原產地 표시제도를 실시키로 함.</p>
<p>〈國內〉</p> <p>재무부는 4月1일부터 업계의 공장자동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유도키 위해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전기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설비로서 업계가 관세감면을 건의한 물품은 대부분 건의를 수용키로 하고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확정.</p>	<p>〈世界〉</p> <p>國際通貨基金(IMF)의 연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92年 世界經濟는 크게 호전되어 평균 경제성장을 3%를 웃돌 것으로 전망. 이는 '90년 2.1% 성장, '91년 1.2% 성장예상과 비교할 때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 성장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p>	<p>〈獨逸〉</p> <p>獨逸의 Siemens社는 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회사인 Texas Instruments의 產業用 制御裝置 생산분야 子會社를 引受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번에 매각될 Texas Instruments社는 종업원 1,200명과 연간 매출액이 1億2千萬\$ 규모를 가진 會社임.</p>
<p>'91. 5月</p> <p>〈泰國〉</p> <p>태국의 타이 올레핀즈社는 總 2億5千萬\$ 규모의 中央發電所 건설프로젝트를 國際入札에 불일 예정. 현재 미국의 엔론 앤드 미션가스社와 영국의 브리티시 가스社가 응찰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총100MW이상의 발전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國內〉</p> <p>電線 輸出이 '90년 부진에서 탈피, 품질 高級化와 輸入先 多邊化 노력에 힘입어 3월말 현재 전년대비 70.4% 증가한 5千6百萬\$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	<p>〈日本〉</p> <p>日本에서는 가전제품에 탑재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퍼지제어 기능이 重電機 분야에도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하철 차량주행제어나 터널내 환기제어에 퍼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p>
<p>〈日本〉</p> <p>日本 電力業界가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設備投資에 나서고 있다. '91年度 설비투자 총액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4兆2千77億円이며 電力 各社는 發電, 送電能력을 높여 공급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91年度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정적 電力공급에 주력.</p>	<p>〈國內〉</p> <p>財務部는 환경오염방지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그동안 오염물질 방지 관련 물품에 한해 80%의 關稅 減免혜택을 주던 것을 폐기물처리부문까지 확대.</p>	<p>〈世界〉</p> <p>日本도시바와 GEC Alsthom사는 Medium Voltage Circuit Breaker를 공동생산 및 판매키로 하고 合作會社인 European Vacuum Interrupters SA社를 설립하여 '92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p>